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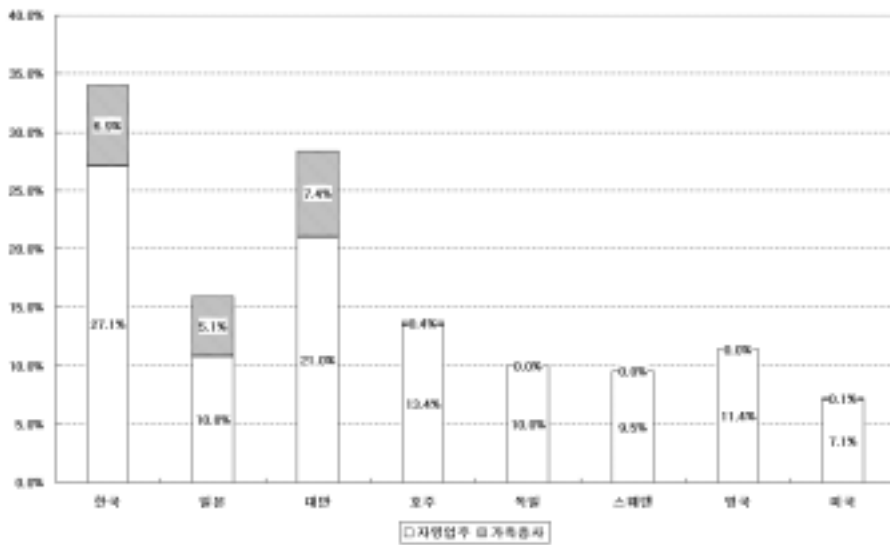
# 자영업 고용구조의 변화와 추이

금재호·윤미례\*

## I. 자영업주의 수와 비중의 변화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편이다. 2004년도 우

[그림 1] 주요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의 비교(2002년)



주: 한국은 2004년 기준.

자료: ILO,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200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3.

대만, *Statistical Yearbook of the Republic of China*, 2003.

\* 금재호=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keum@kli.re.kr), 윤미례=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ymr@kli.re.kr).

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자영업주가 27.1%, 무급가족종사자가 6.9%로 34.0%에 달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이러한 비중은 OECD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값으로,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에 비해서도 높다.

일반적으로 농림수산업 분야에서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는데, 한국은 농림수산업 취업자의 비중이 2004년 8.2%에 달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비임금근로자 비중의 편차를 감안하기 위해 분석대상을 비농전산업<sup>1)</sup>으로 제한하였을 경우,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다소 낮아진다. 그럼에도 2004년 한국은 자영업주<sup>2)</sup> 24.1%, 무급가족종사자 4.9%로 비임금근로자가 29.0%에 달하여 비농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10명 중 3명은 비임금근로자로 분류되고 있다.

〈표 1〉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중의 변화(비농 전산업)

(단위: %, 천명)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전체 취업자수
	소 계	자영업주	가족종사	소 계	상용	임시	일용	
1982	36.5	28.0	8.4	63.5	46.5	8.9	8.0	9,767
1983	35.0	27.1	7.9	65.0	46.9	10.4	7.7	10,190
1984	31.9	24.9	7.0	68.1	45.3	13.7	9.1	10,514
1985	31.8	24.9	6.9	68.2	44.6	14.0	9.6	11,237
1986	32.2	25.2	7.0	67.8	37.5	20.3	10.0	11,843
1987	31.2	24.5	6.7	68.8	38.7	20.2	10.0	12,774
1988	30.7	24.1	6.6	69.3	39.6	20.1	9.6	13,386
1989	28.4	22.3	6.1	71.6	40.0	20.7	10.9	14,123
1990	27.9	21.8	6.2	72.1	39.7	21.0	11.3	14,848
1991	27.9	21.7	6.1	72.1	40.6	20.8	10.8	15,924
1992	28.4	22.5	5.9	71.6	41.6	19.9	10.1	16,342
1993	29.3	22.8	6.5	70.7	42.1	18.9	9.6	16,642
1994	29.1	22.8	6.3	70.9	41.5	19.8	9.7	17,357
1995	29.4	23.3	6.1	70.6	41.5	19.7	9.4	18,012
1996	29.6	23.5	6.1	70.4	40.3	20.8	9.2	18,530
1997	30.0	24.1	5.9	70.0	38.3	22.1	9.5	18,929
1998	30.8	24.4	6.4	69.2	37.2	22.9	9.2	17,541
1999	30.6	24.4	6.2	69.4	34.0	23.5	11.9	17,989
2000	30.3	24.2	6.1	69.7	33.7	24.2	11.8	18,913
2001	30.5	24.6	6.0	69.5	34.5	24.2	10.8	19,424
2002	30.2	24.6	5.6	69.8	34.1	24.2	11.5	20,100
2003	29.5	24.1	5.4	70.5	35.9	24.7	9.9	20,189
2004	29.0	24.1	4.9	71.0	36.7	24.4	9.9	20,7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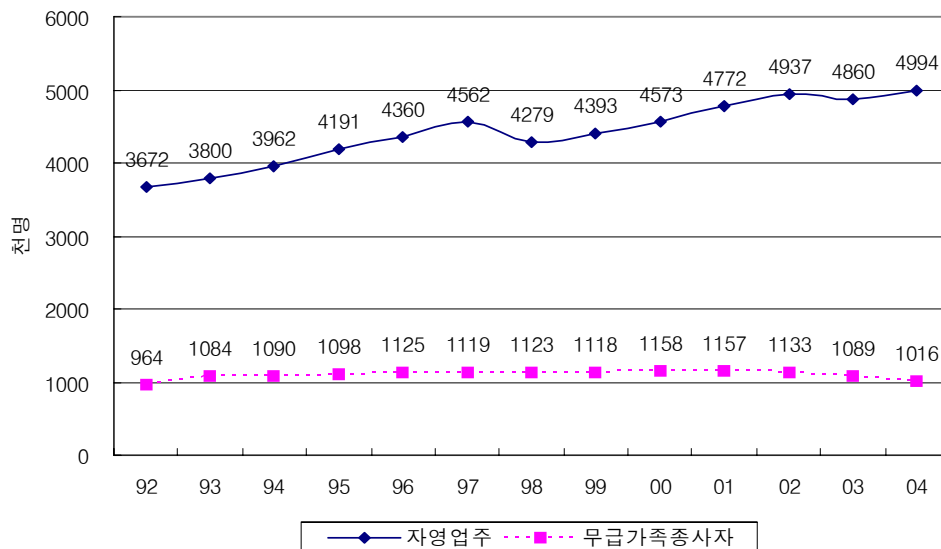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조사』, 각년도.

- 1) 여기에서 비농(非農)이라고 함은 농림수산업을 제외한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정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 글 전체에 적용된다.
- 2) 자영업주 또는 자영업 종사자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고용주와 자영자를 모두 일컫는 말이다.

1980년대에 하락하였던 비농부문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1990대에 들어와 다소 높아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표 1>에서 1982년 36.5%이던 비농부문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1년 27.9%까지 떨어졌다가 1992년부터 추세가 전환되어 그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을 정점으로 다시 줄어드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도 특히 자영업주의 비중 증가가 명확하다. 1998년을 출발점으로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면,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1998년의 6.4%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4년에는 4.9%로 낮아졌으나 자영업주의 비중은 1998년의 24.4%에서 2004년에는 24.1%로 별 다른 변화가 없다. 특히 2003~2004년 사이에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가족형(생계형) 자영업이 축소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2]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수의 추이(비농 전산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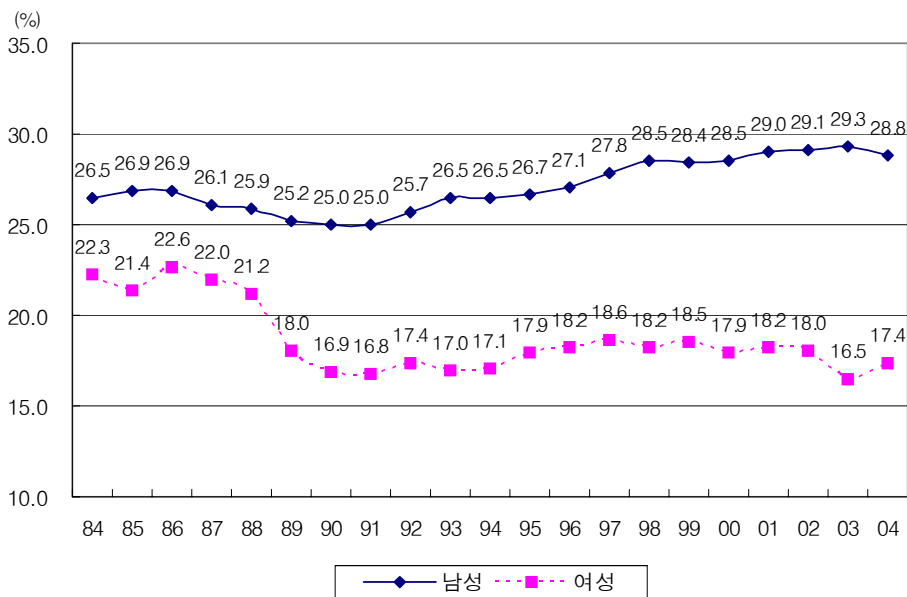
[그림 2]와 같이 취업자의 절대 숫자에서도 비농부문에 종사하는 무급가족종사자의 수는 1998년의 1,123천명에서 2004년에는 1,016천명으로 9.5% 하락하였으나 자영업주의 수는 같은 기간 4,279천명에서 4,994천명으로 16.7%가 늘어났다. 이처럼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비임금부문의 특징으로 무급가족종사자의 축소와 자영업주의 증가를 들 수 있다.

## II. 성별 분포와 변화<sup>3)</sup>

성별로 비농부문 비임금근로자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1982~2004년 사이에 커다란 변화가 없는 반면, 여성은 그 비중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그리고 남녀 모두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였다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임금근로자 비중의 성별 격차는 분석대상을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하였을 때 더욱 명확해 진다. [그림 3]에서 성별로 자영업주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농림수산업을 제외하였을 때, 여성은 자영업주의 비중이 1990년대 이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 남성은 뚜렷한 증가추세를 나타낸다. 여성의 경우 1984년의 22.3%에서 1993년 17.0%로 자영업주 비중이 급락하였다가 이후 17.1~18.6%의 범위에

[그림 3] 취업자 중 자영업주 비중의 성별 추이(비농 전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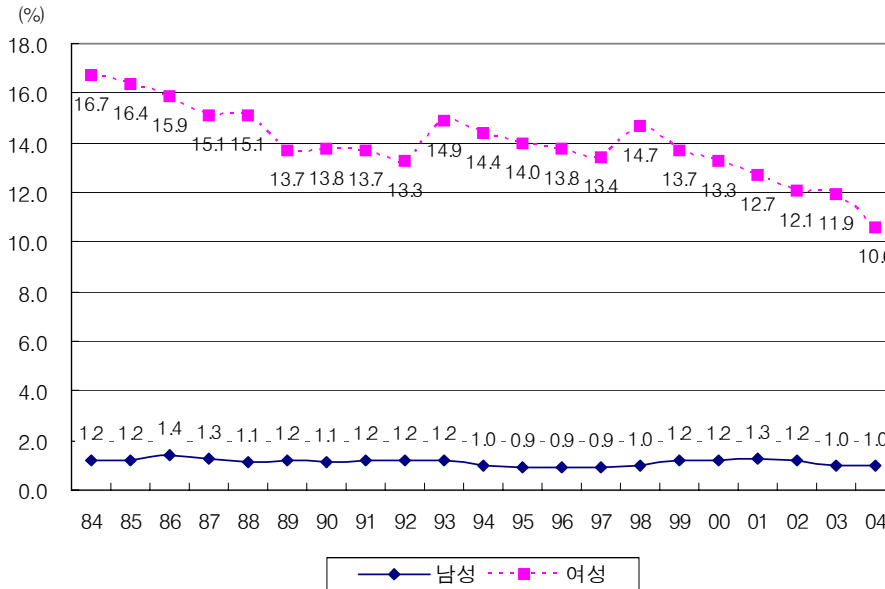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3) 지금부터는 분석의 범위를 자영업주에 초점을 맞추며, 농림수산업을 제외한 비농 전산업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서 다소 안정적으로 변동하고 있지만 남성은 1991년 25.0%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자영업주의 비중이 다시 증가하는 완만한 형태의 U자형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다른 OECD국가들에서 여성의 자영업 증가율이 남성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던 점과는 구별되는 현상이다.

[그림 4] 취업자 중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의 성별 추이(비농 전산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한편, 비농부문의 취업자 중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은 1984년 이후 남성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여성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림 4]와 같이 1994년 16.7%이었던 여성 취업자 중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1993년과 1998년의 일시적 증가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4년 10.6%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관찰되는 비임금근로자 비중의 증가현상은 자영업주, 특히 남성 자영업주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III. 연령별 분포와 변화

자영업주의 연령대별 분포의 추이를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40대 이상의 연령층에

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숫자가 크게 증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1982년 1,427천명이었던 40대 이상 자영업주의 숫자는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04년에는 3,428천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반하여 20대와 30대에서는 그 변화의 폭이 크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20대의 경우 1982~2004년 사이에 오히려 줄어들었고, 30대는 같은 기간 그 숫자가 소폭 상승한 것에 그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20대와 30대는 그 절대적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sup>4)</sup> 이는 외환위기 이후에 심화된 고용불안은 20대와 30대를 직장에 붙들어 놓은 결과를 초래하였고, 반면 40대 이상의 근로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임금근로자로서의 재취업 어려움 등으로 인해 상당수가 창업을 선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대별로 자영업주의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 파악된다. 20대와 30대 연령에서 자영업주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40대에서는 자영업주의 비중이 하향 안정화되는

〈표 2〉 연령대별 자영업주 숫자의 변화(농림수산업 제외)

(단위 : 천명)

	연 도	연 령 대						전 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자 영 업 주	1982	9	415	888	818	442	166	2,739
	1983	7	403	891	849	441	174	2,766
	1984	3	365	848	833	413	161	2,623
	1985	3	385	936	855	437	177	2,793
	1986	4	398	1,028	889	473	196	2,988
	1987	5	416	1,078	925	502	200	3,126
	1988	3	415	1,120	978	516	196	3,227
	1989	4	361	1,056	995	542	194	3,152
	1990	4	342	1,098	1,017	562	209	3,232
	1991	2	390	1,266	1,015	567	222	3,462
	1992	4	402	1,371	1,050	603	241	3,672
	1993	2	384	1,445	1,104	639	225	3,800
	1994	2	364	1,481	1,190	681	244	3,962
	1995	18	408	1,516	1,288	702	260	4,191
	1996	18	397	1,567	1,376	725	277	4,360
	1997	20	420	1,570	1,470	762	321	4,562
	1998	17	377	1,428	1,423	725	309	4,279
	1999	14	354	1,402	1,503	767	352	4,393
	2000	12	340	1,410	1,618	809	384	4,573
	2001	15	317	1,432	1,718	857	433	4,772
2002	14	316	1,407	1,810	925	465	4,937	
2003	16	305	1,331	1,841	927	439	4,860	
2004	11	260	1,295	1,887	1,031	510	4,99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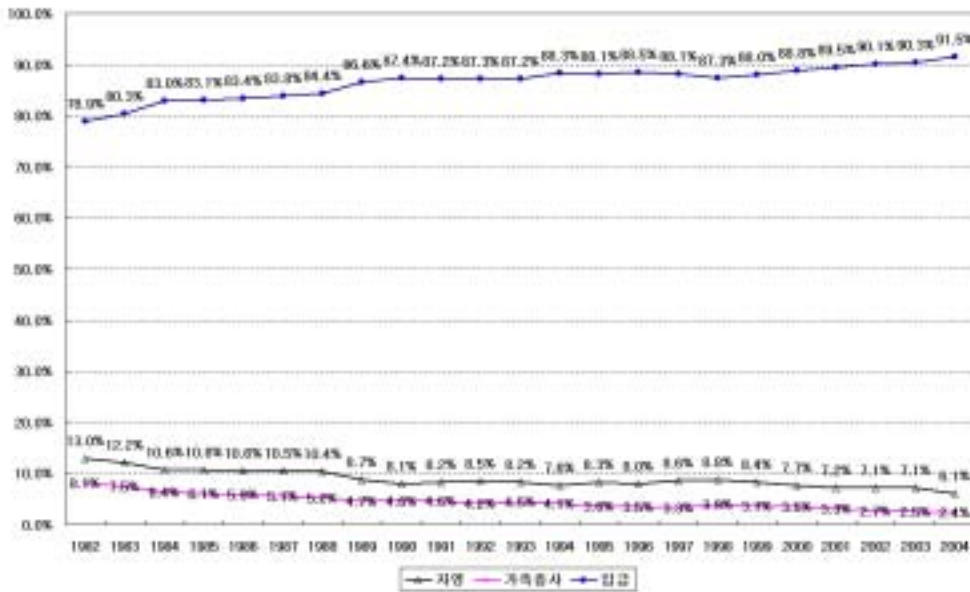
4) 이러한 변화는 남성과 여성 모두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경향을 보이고 있다. 40대 취업자 중 자영업주의 비중이 시간에 따라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은 40대의 경우 자영업주의 절대숫자 증가가 이들의 자영업 선호현상에 기인하기보다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보다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는 40대 임금근로자의 숫자가 1982~2004년 사이에 2.5배 정도 증가하였다는 사실에서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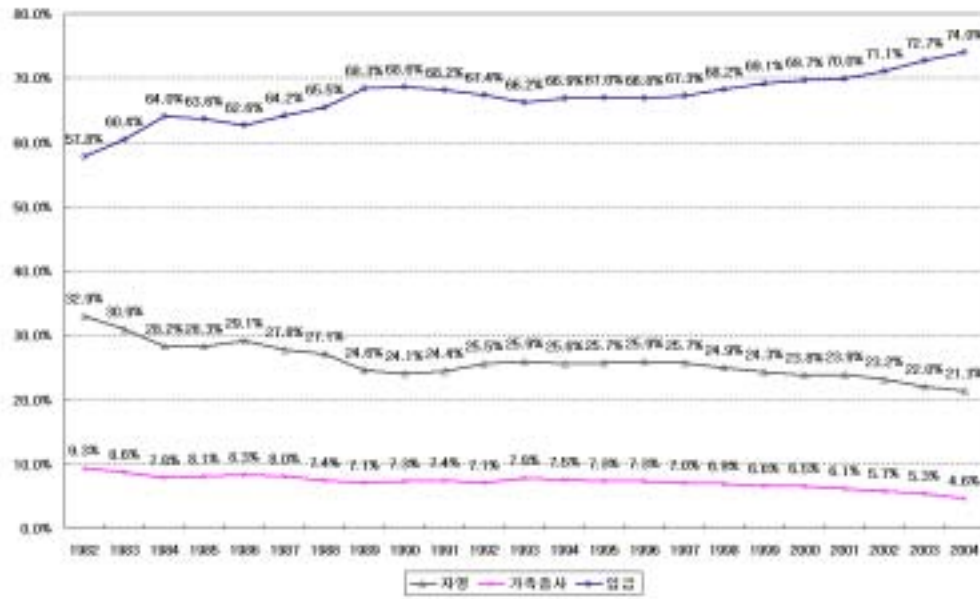
그러나 50대 이상에서는 1990년 중반을 기점으로 자영업주의 비중이 하락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1990년 이후 자영업주 증가는 50, 60대 근로자들의 자영업 비중 증가에 상당부분 연유하고 있다. 이는 50, 60대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근로자로의 취업기회가 매우 제한적이거나 또는 기업에서 장기간 근속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며,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중·고령자들이 부딪치는 취업난을 간접적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현상은 1997년 말의 외환위기로 50대 이상 고령 임금근로자가 커다란 타격을 입었던 점과도 관련이 있다. 즉, 1998년 임금근로자수는 전년대비 13.6%나 줄어들었다. 이후 경기회복에 따라 임금근로자의 절대숫자는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아직도 1997년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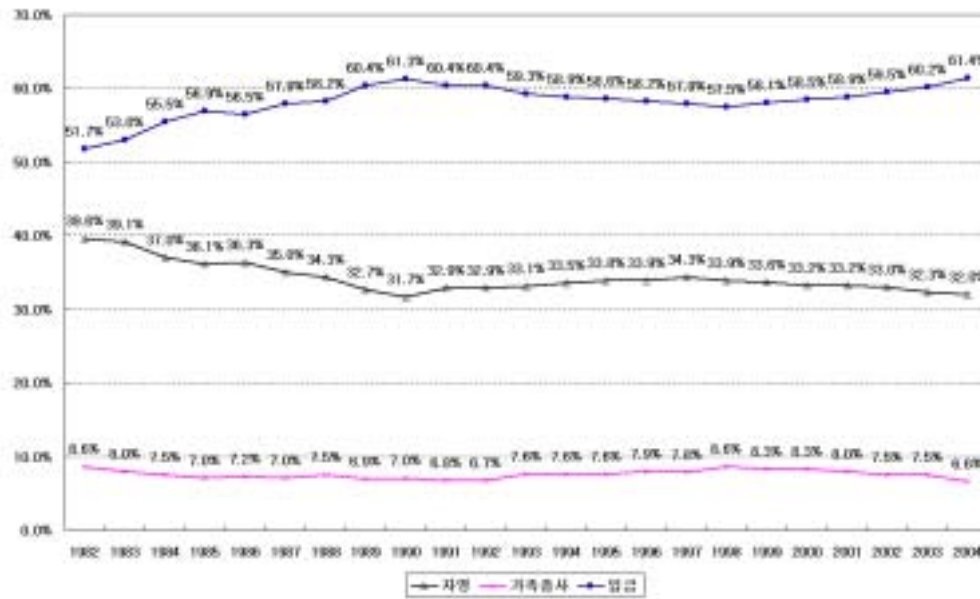
(그림 5) 20대 취업자 종사상 지위의 분포와 추이(농림수산업 제외)



[그림 6] 30대 취업자 종사상 지위의 분포와 추이(농림수산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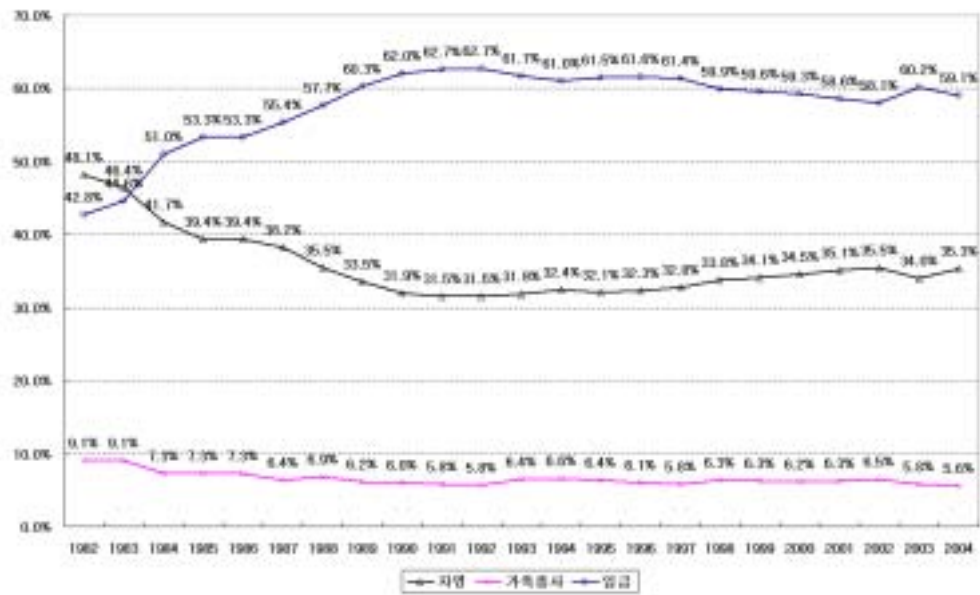


[그림 7] 40대 취업자 종사상 지위의 분포와 추이(농림수산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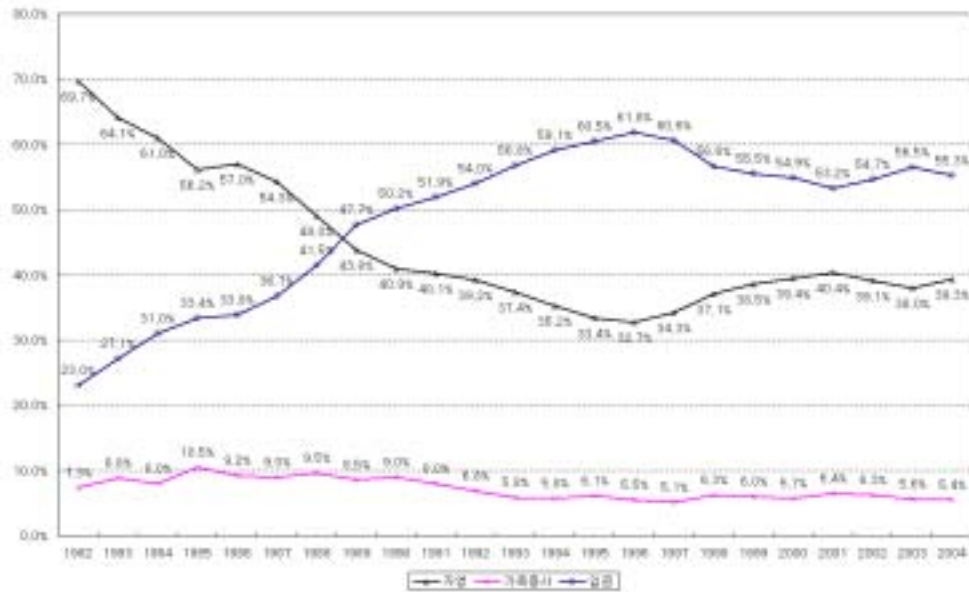




[그림 8] 50대 취업자 종사상 지위의 분포와 추이(농림수산업 제외)



[그림 9] 60대 이상 취업자 종사상 지위의 분포와 추이(농림수산업 제외)



## IV. 학력별 분포와 변화

자영업 종사자의 학력분포와 추이를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1990년대 이후 중졸 이하 저학력자의 숫자와 비중이 줄어드는 한편, 고졸 이상 학력자의 절대적 숫자와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취업자의 전반적인 고학력화와 더불어 저학력 고령자의 노동시장 퇴출 등에 힘입은 바 크다. 2000년대에 들어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고학력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3〉 학력별·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숫자의 변화(농림수산업 제외)

(단위 : 천명)

	연 도	학 력				
		초등졸 이하	중 졸	고 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자 영 업 주	1982	1,031	655	797	36	220
	1983	995	648	847	35	240
	1984	833	619	878	27	266
	1985	831	671	950	31	310
	1986	875	708	1,043	40	322
	1987	870	754	1,134	44	323
	1988	809	766	1,241	45	365
	1989	750	705	1,245	61	391
	1990	717	707	1,325	86	397
	1991	673	753	1,492	108	436
	1992	651	776	1,628	126	491
	1993	646	729	1,740	139	547
	1994	655	761	1,830	154	561
	1995	630	811	1,991	172	587
	1996	626	837	2,069	194	634
	1997	657	880	2,165	233	626
	1998	558	705	2,073	185	758
1999	602	731	2,089	219	752	
2000	609	756	2,188	245	776	
2001	632	735	2,333	252	820	
2002	618	733	2,445	271	872	
2003	530	673	2,347	278	1,032	
2004	556	707	2,387	300	1,04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중졸 학력의 자영업주의 경우는 1990년대 중반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그 숫자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1997년을 기점으로 줄어들어 2004년 707천명 수준까지 줄어들고 있다. 이는 자영업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임금근로자 등 다른 고용형태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되는 추세이다.

이에 대해 고졸 학력의 자영업주는 1982~2004년 사이 약 3배가 증가하였고, 전문대졸의 자영업주도 같은 기간 무려 8배, 대졸 이상의 고학력 자영업주 또한 1982년의 220천명에서 2004년 1,044천명으로 약 4.7배 늘어났다. 고학력 자영업주의 증가는 고학력 임금근로자의 증가와 궤도를 같이한다.

고학력 자영업주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자영업의 선택이 자신의 소득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자발적 선택이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즉, 임금근로자로서 창업을 위한 경험과 능력을 쌓고, 창업에 필요한 자산을 축적한 뒤 자발적으로 창업을 시작한 근로자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sup>5)</sup>

## V. 산업별 분포와 변화

산업별로 자영업주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 4>에 나타난 것처럼 자영업주의 대부분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주의 숫자는 1993~2001년 사이 31.1%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자영업주 중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비중도 1993년의 59.9%에서 2001년 69.4%로 9.5%포인트 증가하였다.

서비스업 내에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가장 많은 자영업주가 집중되어 있어 2004년의 경우 전체 자영업주의 36.1%인 2,209천명이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률의 측면에서는 사업 및 개인, 공공서비스업종과 전기·수도·가스 및 금융업이 성장을 주도하였다.

전반적으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주는 절대적 숫자와 비중 모두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제조업과 공업 등의 광공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영업주의 수는 1990년대에는 안정되어 있었으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감소추세가 나타나 2004년

5) 이러한 점은 금재호·조준모(2000), 금재호 외(2003) 등의 연구에서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이들의 분석결과는 자영업주들이 매우 다양한 성격을 지니며, 한편에는 고도의 능력과 자질을 지닌 자발적 자영업주인 것에 비해, 다른 한편에는 저능력의 근로자로 임금근로자로 취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두 집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산업과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숫자의 변화와 추이(전산업)

(단위 : 천명)

	연 도	농림 수산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전 체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	전기·운수·통신·금융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자 영 업 주	1993	1,458	542	3,259	266	2,070	288	635
	1994	1,414	547	3,415	293	2,172	292	657
	1995	1,378	559	3,632	319	2,201	324	788
	1996	1,350	569	3,791	342	2,276	351	822
	1997	1,340	582	3,980	359	2,359	382	879
	1998	1,338	503	3,776	317	2,253	349	857
	1999	1,310	533	3,859	290	2,295	379	895
	2000	1,291	559	4,014	323	2,324	419	950
	2001	1,279	554	4,217	343	2,269	468	1,137
	2002	1,253	549	4,388	382	2,293	525	1,189
	2003	1,183	507	4,353	431	2,230	512	1,180
	2004	1,116	499	4,495	430	2,209	559	1,29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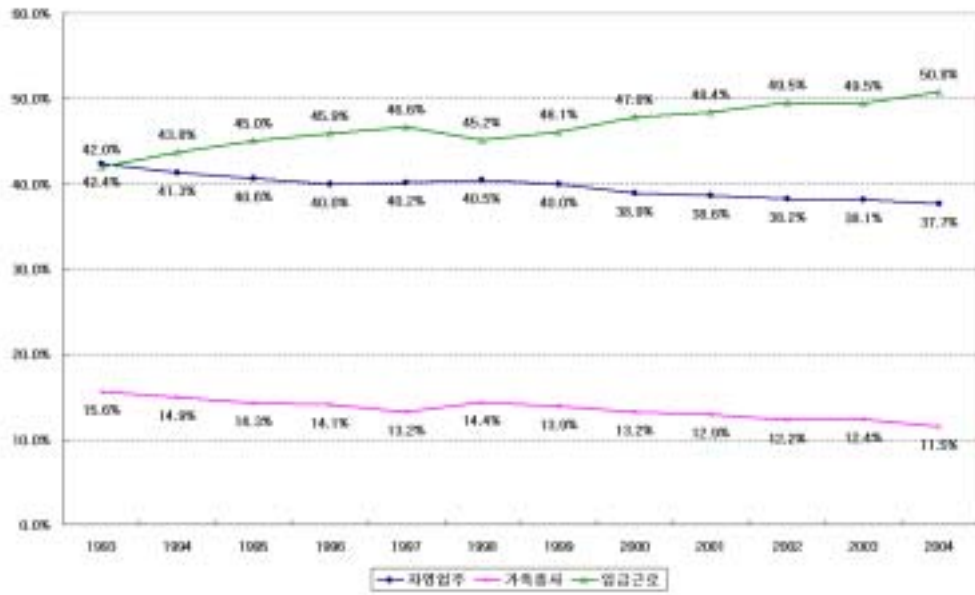
499천명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자영업주 중 광공업에 종사하는 비중도 1993년의 10.3%에서 2004년 8.2%로 다소 하락하고 있다.

각 산업별로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의 분포를 살펴보면, 농림수산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농림수산업의 성격상 자영업주의 비중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향후 우려의 대상이다(그림 10 참조). 우리나라의 유통구조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하였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주의 상당수가 영세한 상황이다.

대형화와 전문화, 그리고 산업구조조정 결과로 인해 이들 산업에서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10]처럼 이들 산업에서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1993년의 42.0%에서 2004년 50.8%까지 높아진 반면, 자영업주의 비중은 42.4%에서 37.7%로 낮아졌다. 특히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동 기간 15.6%에서 11.5%로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과거의 생계형 또는 가족형 자영업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급격히 상실해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분야에서 대형화와 전문화와 같은 유통업의 혁신 및 산업구조의 변화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이들 산업구조조정은 영세한 상인들에게 커다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결과 영세자영업주의 상당수가 도시 빈민화되거나 다른 직종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할 위험성을 제기한다.

[그림 1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종사자들의 분포와 추세



## VI. 직업별 분포와 변화

자영업주의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의 숫자와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농림어업 분야의 종사자를 제외하였을 때 <표 5>에서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의 숫자는 2004년 현재 2,336명으로 전체 자영업주의 46.8%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기능원 및 기능근로자가 611천명으로 12.2%를, 그리고 조직원 및 조립원이 693천명으로 13.9%를 2004년에 차지한다.

전문가 또는 준전문가로 활동하는 자영업주의 비중은 1982년의 4.1%에서 2004년에는 16.3%로 크게 높아졌다. 그에 따라 전문가에 속하는 자영업주의 숫자도 같은 기간 111천명에서 813천명으로 7.3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OECD국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1982년 이후의 자영업 노동시장을 직업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자영 전문가 집단의 성장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직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새로운 경제환경과 IT를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 아래에서 자영업주의 증가가 새로운 소득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자발적으로 추구한 결과라는 긍정적 측면을 제기한다.

〈표 5〉 직업과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숫자의 변화와 추이(농림수산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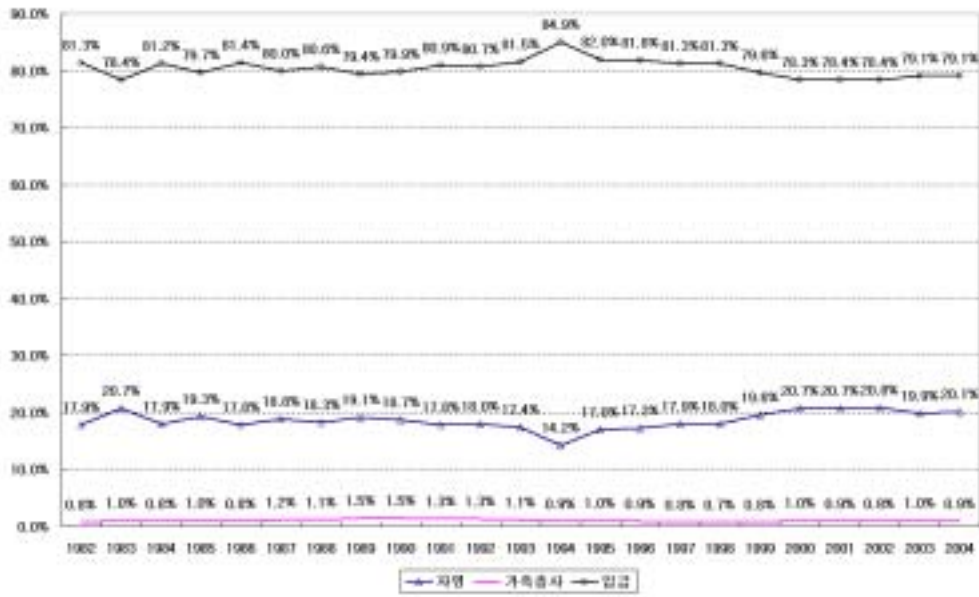
(단위 : 천명)

연 도	직업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종사자 및 판매종사자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1982	133	111	7	1,904	0	297	126	160	
1983	155	143	8	1,877	0	254	141	188	
1984	164	136	4	1,805	0	213	120	180	
1985	172	166	5	1,911	0	203	144	192	
1986	179	166	8	1,919	0	276	180	260	
1987	165	190	9	1,953	0	304	211	294	
1988	182	196	12	1,958	1	307	232	338	
1989	190	228	11	1,958	0	226	228	310	
1990	200	242	12	1,995	0	219	230	334	
1991	226	260	15	2,048	0	250	262	402	
1992	247	293	27	2,121	0	259	280	444	
1993	248	287	28	2,286	0	228	272	451	
1994	314	364	36	2,017	0	542	431	257	
1995	295	480	38	2,088	0	645	425	218	
1996	309	518	39	2,144	1	673	460	215	
1997	299	573	37	2,234	1	691	508	218	
1998	279	583	31	2,121	1	591	467	206	
1999	246	670	39	2,098	1	612	489	238	
2000	263	726	50	2,099	0	629	535	271	
2001	294	739	62	2,312	1	644	582	138	
2002	303	766	65	2,360	2	651	652	138	
2003	357	762	69	2,284	2	602	662	121	
2004	340	813	66	2,336	3	611	693	13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전문가 중에서 자영업주의 비중은 1982년의 17.9%에서 2004년에는 20.1%로 높아진 반면,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81.3%에서 79.1%로 시계열적인 불안정성은 나타나지만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임금근로로 취업한 전문가의 절대적 숫자가 동기간 6.3배(2,699천명)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형태의 전문가의 증가가 임금근로 전문가의 증가보다 더욱 현저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림 11] 전문가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와 추이(농림수산업 제외)



## VII 맺음말

우리나라의 자영업주 비중은 외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나 이들의 상당수는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하여 이들의 특성과 그 변화의 추이를 분석한다.

먼저, 19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던 비농부문의 자영업주 비중은 1990년대에 들어 다소 높아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자영업주의 비중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2000년대 이후 역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낸다. 비중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주의 절대 숫자는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무급가족종사자 숫자의 축소 현상과 대비된다.

둘째, 성별로 여성은 자영업주의 비중이 1990년대 이후 상대적으로 안정적 모습을 보이는 반면, 남성은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인다. 이처럼 자영업주의 증가는 남성 자영업주의 증가에 기인하며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자영업 증가율이 남성보다 빠른 다른 OECD 국가들의 경험과 비교된다.

셋째, 1982~2004년 사이 20대 자영업자의 절대숫자가 감소하고, 30대는 소폭 상승한

것에 비해 40대 이상에서 자영업주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50대 이상의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주가 점유하는 비중조차도 높아졌다. 이는 50, 60대 중·고령자의 경우 임금근로자로의 취업기회가 매우 제한적이거나 또는 기업에서 장기간 근속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

넷째, 자영업자의 고학력화가 눈에 띄게 두드러진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발견되는 자영업자의 증가현상은 고졸 이상 학력자의 증가에 기인한다. 특히 고졸 취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 종사자의 증가세가 더 높았다.

다섯째, 자영업주의 대부분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주의 비중도 높아졌다. 서비스업 내에서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집중되어 2004년 전체 자영업주의 36.1%가 이들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률의 측면에서는 사업 및 개인, 공공서비스업종과 전기·수도·가스 및 금융업이 고용 성장을 주도하였다.

여섯째, 전문가 및 준전문가로 활동하는 자영업주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또한 1990대 이후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들의 임금근로자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자영업 분야에서 커다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가족형 또는 생계형 자영업의 몰락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향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영업주 및 가족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 참고문헌

금재호·조준모, 『자영업의 선택에 관한 이론 및 실증분석』, 『노동경제논집』, 제23권 특별호, 2000.

금재호·류재우·전병유·최강식, 『자영업 노동시장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ILO,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2003.